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24〉 독일 뮌헨 3대 회화관

루벤스서 앤디 워홀까지…동서고금 '모든 컬렉션'

뮌헨=정상필 EU특파원

뮌헨 도심 복합문화센터 예술지구

1816년 루드비히 1세에 의해 조성

고전~근대~현대 12개 미술관 자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북쪽 나라와 이태리나 스페인 등의 도시 풍경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지중해에 가까운 남쪽으로 갈수록 도시 곳곳에서 자유분방함이 느껴진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시들은 가끔 사람이 사는 곳인지 궁금할 정도로 깔끔하다. 민족적 특성은 도시의 겉모습에서도 금방 알 수 있다. 한 지역의 문화적 척도인 미술관을 대하는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미술관 지구(MuseumsQuartier)와 같이 온갖 미술관을 한 곳에 몰아놓은 게르만인의 정리 본능은 독일의 대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베를린의 박물관 섬이 그렇고, 프랑크푸르트의 박물관 거리가 그렇고, 뮌헨의 예술 지구가 그렇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Bayern)의 주도(州都) 뮌헨(Munchen) 도심에 있는 예술 지구(Kunstareal)는 게르만 도시 특유의 복합문화센터의 원형과도 같은 곳이다.

예술 지구는 1816년 바이에른 제국의 황제 루드비히 1세(Ludwig I·1786~1868)가 소장하던 그리스와 로마 조각품을 모아 문을 연 그리스미술관(Glyptothek)의 설립과 함께 조성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리스와 로마 고미술품이 있는 앤틱 소장관(Staatliche Antikensammlung), 뮌헨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렌바흐 하우스(Lenbachhaus) 등 12개 미술관이 모여 있다. 이 중에서도 주정부 소장품을 모아 고전(13~18세기), 근대(18~19세기), 현대(20세기 이후)로 나눠 전시하고 있는 3대 회화관이 하이라이트다.

◇고전 회화관(Alte Pinakothek)

루드비히 1세는 황제에 등극한 이듬해인 1826년 자신의 가문인 비텔바흐(Wittelsbach)를 위해 미술관 설립을 지시한다. 설계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루벤스의 대작 '최후의 심판'(1620)이 전시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최후의 심판'은 당시 선보인 회화로선 획기적으로 거대한 가로 세로 460×606㎝의 크기였다. 1836년 화려하게 문을 연 고전 회화관은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미술관의 모델이 됐다. 도심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널찍하고 깔끔한 정원이 있어 유럽 미술관의 표준이 되기에 손색 없다. 2차 세계대전 때 상당 부분이 손실됐으나 1950년대 후반 복구작업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소장품의 역사는 바이에른의 공작 빌헬름 4세(Wilhelm IV·1493~1550)에서 시작한다. 그는 당대의 유명 화가들에게 작품을 주문했으며, 그의 뒤를 이은 공작 및 황제들이 플랑드르를 중심으로 다른 유럽 지역의 그림들을 수집했다. 18세기 후반 바이에른 통합과 뒤셀도르프 등 다른 도시의 갤러리에 있던 주요 소장품들이 이 곳으로 모였다.

독일 르네상스의 대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의 '네 명의 사도'(1526)를 비롯, 이탈리아 화가 지오토, 보티첼리, 프랑스의 니콜라 푸생, 스페인의 엘 그레코 등의 작품 800여점이 18개 대형 전시실, 24개 소형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서양미술의 거장들은 거의 빠짐없이 섭렵하고 있어 건물 뿐 아니라 내용도 유럽 미술관의 표본이 될 만하다.

◇근대 회화관(Neue Pinakothek)

근대 회화관은 원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된(alte·영어로 old) 미술관을 두고 루드비히 1세가 1853년에 새로(neue·영어로 new) 지은 미술관이다. 루드비히 1세는 고전 명작 뿐만 아니라 당대 미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왕자가 된 1809년부터 작품 수집에 열을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원래 건물은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파괴됐고, 1949년에는 유적마저 헐렸다. 포스트모던 형식의 건물로 설계된 지금의 근대 회화관은 1981년 새롭게 문을 열었다.

근대 회화관과 현대 회화관의 소장품을 가르는 기준점은 1900년을 전후해 나타난 인상주의다. 근대 회화관이 근처의 고전 회화관이나 현대 회화관보다 더 많은 관람객을 끄는 이유는 작품들이 너무 무겁지도, 너무 난해하지도 않아 현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 고흐나 르누아르, 고갱 등으로 대표되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실패 확률이 없는 보증수표와도 같다. 반 고흐의 자화상은 1938년 나치 정권 아래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압수됐다가 이듬해 팔리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근대 회화관은 1915년 주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18~19세기 회화와 조각 3천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회화 400여점, 조각 50여점이 22개 방에서 전시되고 있다.

◇현대 회화관(Pinakothek der Moderne)

독일인 건축가 스테판 브라우펠스(Stephan Braunfels)의 설계로 7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2002년 9월 개관했다. '현대'라는 이름값이라도 하듯 건물 구조가 시원시원하다. 로비로 들어서면 원통형의 구조가 돔이 있는 천장 끝까지 뻗어 있다. 순수미술, 건축, 디자인, 드로잉 등 4개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지하에서 디자인 전시가, 1층에서 건축과 드로잉이, 2층에서 순수미술 전시가 각각 이뤄진다. 현대 미술관에 전시 중인 4가지 분야의 소장품은 모두 주인이 주정부이거나 연방정부, 뮌헨 대학 등으로 제각각이다. 지난 2004년부터는 1층에서 보석류 전시되고 있다.

순수미술의 경우 앙리 마티스를 시작으로 야수파, 큐비즘, 바우하우스, 초현실주의, 추상 표현주의, 팝 아트, 미니멀 아트 등 작품이 주 전시품목이다.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로 대표되는 다리(Die Brucke)파, 폴 클레(Paul Klee)의 청기사(Der blaue Reiter)파 등 20세기 초반 활동한 독일의 표현주의 그룹의 작품들과 상대적으로 더 알려진 당대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감상하는 것이 포인트다.

드로잉 전시품들은 비텔바흐 컬렉션에서 전해내려오는 것들이다. 알브레히트 뒤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폴 세잔 등의 드로잉이 전시돼 있다. 건축 부문은 루드비히 2세의 기증을 받은 뮌헨 기술대학 박물관에서 운영한다. 유명 건축가들의 드로잉, 청사진,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을 볼 수 있다. 지하에 전시 중인 디자인 컬렉션 재단은 1925년 설립돼 7만여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camus@kwangju.co.kr

1836년 개관한 뮌헨 고전 미술관은 독일은 물론, 13~18세기 유럽 각국의 유명 화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뮌헨 고전 미술관 내 루벤스 전시실. 루벤스의 대작 '최후의 심판'(맨 왼쪽 그림)은 워낙 거대해서 미술관 설계 당시에도 고려대상 1순위였다.

뮌헨 근대 미술관 로비. 고전 미술관보다 10여년 늦은 19세기에 건설됐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돼 새로 지은 건물이다.

천장까지 뻥 뚫린 현대 미술관 로비. 이곳에는 순수미술, 건축, 디자인, 드로잉 등 4개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